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 "일류경제도시 디자인에 앞장서겠다"

열린정책뉴스 | 승인 2025.06.23 13:46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이 지난달 30일 제3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이 원장은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일류도시디자인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이 원장을 만나 일류도시디자인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1. 대전디자인진흥원 제3대 원장 취임을 축하드린다. 원장님은 대전대학교 교수, 대전발전연구원장 등 학계와 공공기관을 두루 거치며 도시행정, 공공정책 기획 등 도시관련 분야에서 누구보다 경험이 있으시다. 앞으로 디자인 원장으로서 중점추진할 과제를 말씀해주신다면?

▶ 무엇보다 조직의 안정화와 행복한 일터조성이 중요하다. 구성원이 행복해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고객에게 행복을 전달하고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류도시디자인을 위해서는 디자인이 지역민의 삶과 지역산업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2가지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

공공디자인 역할 측면에서 시민들이 언제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을 주는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 디자인을 제공하려고 한다. 디자인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디자인 역할 측면에서 지역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혁신적 디자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뿌리산업들을 비롯한 소기업들의 디자인애로 해결에 앞장서면서, 대덕특구의 성과들이 세계로 날개를 달고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살린 창의적 디자인으로 뒷받침하겠다.

이 모든 디자인은 디자이너들이 주도하고 발전을 이끌기 때문에 대전의 디자인산업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고 디자인인력의 전문성 제고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 원장님은 최근에는 대전경실련 도시안전디자인센터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범죄예방환경 디자인(CPTED) 도입,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등 시민 삶과 밀접한 도시디자인 정책을 주도하셨다. 현재 대전에서 도시디자인 관련하여 가장 먼저 개선할 점을 꼽는다면 무엇인지?

▶ 대전의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디자인격차가 매우 크므로 격차를 줄이는 차원에서 동부지역은 전통을 살리는 도시디자인사업을 전개하고 서부지역은 모던한 디자인사업을 적용해서 대전 전지역이 조화로운 도시품격을 갖추게 할 계획이다. 특히 동부지역은 안전이 취약하고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이므로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디자인하고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통해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생각이다.

그 외에도 도시디자인측면에서 대전의 관문인 대전역에 과학자시계탑을 설치하고, 으능정이 스카이로드에 혁신적이고 첨단 디자인을 입혀서 젊은 관광객들에게 기쁨과 재미를 선사하고 싶다. 또 대전시청사를 명품건축물로 만들기 위해 2, 3층 대형유리창에 스테인드글라스를 접목하는 등 청사의 상징성과 화제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구상이다.

3. 진흥원은 대전관광공사와 함께 개발한 꿈씨패밀리 캐릭터를 개발하고 꿈돌이라면까지 출품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진흥원에서 꿈돌이를 활용하여 새롭게 디자인을 개발할 계획이나, 라면 외에도 새롭게 진출할 분야를 구상하고 계시는 지?

▶ 꿈돌이 캐릭터가 전국적으로 사랑받게 하기 위해 여러 굿즈를 개발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역연고 유명인사, 류현진 야구선수와 오상욱 펜싱선수를 꿈씨패밀리와 콜라보 굿즈 개발을 통해 스포츠특별시 대전의 이미지를 확대하고자 한다.

앞으로 꿈씨패밀리를 시정 전반에 다양하게 반영하면서, 대전시민들이 사랑하고 전국민의 마스크트로 발전시켜 나갈 아이디어를 계속 공모하고 개발할 계획이다.

4. 진흥원은 작년에 지역디자인인프라구축사업을 통해 지원한 사업이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올해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처럼 지역 기업들이 보유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계획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신지?

▶ 지역의 주력산업이나 기술 기반 미래상품 디자인기획 및 고도화를 중점과제로 보고 있다. 지역기술의 가치확산 및 사업화 연계기반 마련을 위해 디자인 생태계 구축과 산학연관 협력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대학 연계 디자인 R&D 프로세스 교육모델을 운영하고 있고 충청권 대학 디자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자인어워드를 통해 미래의 디자인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다.

5. 진흥원은 출범한 지 5년 정도로 아직 초창기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진흥원의 내부역량 강화와 역할 정착을 위해 대표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무엇인지

▶ 디자인 전문인력과 디자인산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들의 디자인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기 때문에 디지털전환시대에 맞는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과 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외부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정례적인 자문과 협업을 도모하고 있다.

역할강화를 위해서는 디자인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본래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설립될 당시 충청권을 아우르는 디자인전문기관으로 탄생했는데 현재는 디자인서비스가 대전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충청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충남이나 충북, 세종 등에 공동사업을 개발하여 충청을 대표하고 선도하는 일류디자인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열린정책뉴스 webmaster@opengo.center.com

저작권자 © 열린정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